

순천만 갈대, 예술이 되다

생태공원에 갈대오브제 '남도의 풍류' 등 7개 작품 전시...포토존 인기

세계적인 연안습지인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갈대를 이용한 오브제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자연과 잘 어우러진 생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갈대 오브제 작품 7점을 전시 중이다.

갈대 오브제는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갈대를 활용해 순천만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현대

인의 일상과 자연과의 소통을 표현하고 있다. 전시작품은 남도의 풍류, 순천의 갈대와 부들, 가을풍경(해바라기), 가을풍경(잡자리채), 일상탈출, 발견, 순천만 물길 등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갈대오브제는 순천만을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갈대를 활용한 전국 유일의 조형작품"이라면서 "방문객들의 포토존으로도 큰 인기"라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



'가을풍경(해바라기)'



'남도의 풍류'



'가을풍경(잡자리채)'



'순천만 물길'

市 '순천만국가정원' 업무표장 등록 추진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의 독점적 사용 권한 확보를 위한 업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업무표장 등록 추진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의 이름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 사용하는 기호·문자·입체적 형상 등 상표의 일종이다.

업무표장을 등록하면 순천시는 앞으로 10년간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순천만국가정원'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개최나 기념품 제작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순천만국가정원'의 이미지를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석현동에 '제1호 안심원룸' 지정...방법·순찰 강화

소방·생활안전 등 '적합'

순천에 '제1호 안심원룸'이 탄생했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힐링빌'이 방법·소방·생활안전 등 3개 항목 13개 분야에 적합 판정을 받아 순천 최초 안심원룸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 7월 순천경찰서, 순천소방서, 순천대학교 등 기관과 100여개의 원

룸이 밀집해 있는 삼산동 지역을 대상으로 '안심원룸 인증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원룸의 특성상 절도와 성폭력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된 점을 고려해 안심원룸 지정 시 방법 순찰 강화와 가로등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심원룸 인증은 소유주가 삼산동주

민센터에 신청해 4개 기관이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순천경찰서에서 최종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삼산동주민센터(061-749-8251)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안심원룸 1호 지정으로 원룸에 주로 발생하는 침입 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2016년도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신청 접수

읍면동사무소 이달까지

순천시는 "오는 30일까지 2016년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순천에 조성된 에너지 자립마을은 1곳으로, 순천시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2020년까지 2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내년도 에너지 자립마을은 신청마을 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중 한 곳을 사업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공동 햇빛발전소 설치, 마을공동기반시설 등 분야별로 최대 5억원이 지원되며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건립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

"매실농가 가지 축기 도와드려요"



시, 연말까지 전문 사업단 운영

순천시가 전문기술이 필요한 매실 전정(剪定)작업을 도울 전문 사업단을 운영한다. 전정은 매실 등 과수재배 시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해 가지가 솜아주거나 잘라내는 작업이다.

순천시는 10월 "이날부터 노동력과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실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전정·전정작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실 전정 작업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작업으로, 순천시는 현장 테스트를 거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선정해 9개팀 45명의 운영팀을 구성했다. 또 지난달에는 운영 사업단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기 교육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 및 전정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매실 전정사업은 8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69농가 61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하며, 고령농 등 취약농가의 전정지원은 물론 전정기술 보급 등 선도농가 육성도 병행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전정사업을 통해 매실나무 기본 수형을 바로 잡고 전정기술 향상을 통한 고품질 매실 생산으로 전국 최고 매실단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지방지사 (061)		시내지국	
광 산 062)944-0444	남 원 시 063)626-1601	광 천 366-8375	
군산시 063)467-2500	순 창 군 063)653-0444	광 남 222-9440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광 부 652-0175	
		광 동 264-2012	
		광 명 222-9054	
		광 동 부 225-6001	
		광 동 문 267-4748	
		광 운 673-4698	
		광 선 675-5530	
		광 북 525-3761	
		광 무 372-2352	
		광 서 369-0583	
		광 송 675-6805	
		광 신 512-1732	
		광 오 571-7658	
		광 치 266-7601	
		광 용 522-7752	
		광 산 512-8116	
		광 우 371-9818	
		광 월 961-2339	
		광 임 222-1896	
		광 중 224-6604	
		광 원 673-1800	
		광 침 973-2900	
		광 장 224-8212	
		광 평 376-6511	
		광 암 682-8112	
		광 남 959-1500	
		광 정 375-986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